

'블루 이코노미' 분야별 전담팀 구성해야

전남 신성장추진위, 11명 위원
6대 프로젝트 투자 유치 자문
구체적 전략·실천계획 논의
콘텐츠 개발·채류형 숙박시설 등



지난 20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문화·미래산업·전자·조선·영상 등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블루 이코노미'의 세부정책과 미래 산업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계획, 이를 실현할 분야별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야별 프로젝트의 실현 주체가 민간자본인만큼 기업 유치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연구해 보다 고도화된 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자 만능보행기 모델 개발과 컴퓨터 도시, 선박 해양 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63빌딩에서 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새 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6대 프로젝트의 발전 및 투자유치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했던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정책 자문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7개 과제에 대한 세부 설명과 자문이 이어졌다. 6대 프로젝트는 '블루 에너지' -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 '블루 바이오' -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블루 트랜스포트' - 미래형 운송기 산업 중

심, '블루 농수산' -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블루 시티' - 은퇴 없는 전남형 스마트 시티다.

배국환·조순태 위원은 블루 이코노미 6개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담팀 구성을 통해 분야별 로드쇼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규·권희석 위원은 '블루 투어' 분야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채류형 숙박을 위한 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윤종록 위원은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가 21세기 비전과 일치한다고 공감을 표하고, 고령자 만능보행기 모델 개발과 컴퓨터 도시, 선박 해양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지난 1차 회의 때 제안된 삼·연안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 관광, 인재육성, 미래 산업 등 5개 분야 15건은 해당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완료했고, 10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중장기 검토를 하고 있다.

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과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지난 5월 지역 출신 전직 고위관료, 산업계 전·현직 CEO, 법·계·학계·관계 유력인사 12명의 위원으로 출범했다.

이날 MBC 전일일기 PD 등 드라마부문 국장을 지냈던 이은규(㈜엠투엠미디어 대표이사)를 신성장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 '단계적접근' 재확인...美 "논의준비 돼 있다" 김명길 담화 관련 국무부 "9월 하순 협상 재개 의지 환영"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화대사가 비핵화 해법과 관련,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명길 순화대사가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언급을 거듭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한 것을 환영하면서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대사가 이번 담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피력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문에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김 대사가 이날 자신의 직함을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로 소개하는 등 북한이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김 대사를 지명할 사실을 공식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정부의 이날 반응은 북한의 '단계적 접근' 주장에 대해 협상 태이블이 꾸러지면 양측의 안을 각각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 인지는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외무성 국장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데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날과 같은 내용의 반응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日, 'WTO 수출규제 제소' 양자협약의 응하기로

분쟁해소 첫발...합의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지난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주재내 한국 대표부도 이날 오후 주재내 일본대표부로부터 양자협약의 요청 수락서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이날 한국과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도 보도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약의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은 양자협약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약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방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약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재내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하게 해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약의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 청년친화 현정대상'

전남도, 소통부문 대상

전남도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19 청년친화 현정대상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심각한 고령화 속에 젊은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 청년친화 현정대상은 지난 5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국회사무처 소관)에서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쓰는 지자체와 국회의원에 대해 선정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이날 시상식을 가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활성화, 지역 산업 선도인력 양성, 자립 지원과 복지 향상, 미래 청년 꿈사다리 제공 등 6개 분야 7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2%·전남 1%...지역예술인, 정부지원사업서 '소외'

수도권 집중...최경환 의원 "공모사업 선정방식 개선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역 문화예술인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북구 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공모사업 지원 건수는, 서울 57.4%, 경기도 14.5% 등 전체 72%가 서울·경기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금액도 600억 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370억 원(61%)이 서울과 경기 두 개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지난 8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연예술분야 공연단체의 경우 서

울 44.9%, 경기 12.9%로 서울과 경기도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 예술인도 서울 44.2%, 경기 23.3%로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방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인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투자

10억원, 2분

- 대상 - 금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12% 이상

법적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시행하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9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무엇인가요?

R&D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산학연협력의 이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기술활용, 프리젠테이션 실무,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등	45시간	30명

모집기간 2019.09.02.(월) ~ 2019.09.20.(금)

교육기간 2019.09.23.(월) ~ 2019.11.13.(수)

교육시간 매주 월, 수 18:30 ~ 21:30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등관 3104호실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수료 발급 등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접수처 우)62396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 메일 : always@kw.ac.kr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